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기쁘고 은혜로운 추석이 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

추석명절이 6일 앞으로 다가와 전국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그 어느 해보다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명절이 되었다.

지난 8월말 전국을 휩쓸고 지나간 태풍 루사로 인해 호남과 영남지방 그리고 강원도 영서지방 일대는 철저히 파괴되어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는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드러야 할 올바른 제사를 망각하였고 제사의 대상 또한 하나님이 아닌 조상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온통 추한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이번 태풍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가 얼마나 부질없

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랄 것 없는 민족에게도 긍휼을 잊지 않고 베푸시어 추수할 곡식과 과실을 남겨주셨다. 이번 주 많은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향한다. 고향에서 함께 자리한 온 가족 앞에 복음 증거 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 추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기도한다.

교회는 이번 추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본지 2면에 추석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추석 가족예배의 모범을 게재하였다. 고향으로 가는 차에 성경찬송과 순례자를 함께 실어 온 가족이 구원 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2002년 하반기 열린교회 프로그램 등록 아직 가능

금주로 모든 등록 마감

교회가 성도와 이웃 주민의 신앙성장과 여가선용, 평생교육을 위해 매년 전, 하반기 2회에 걸쳐 개강하고 있는 열린교회 프로그램(12학기 서울성경대학, 5학기 살롬 경로대학, 4학기 서울주부대학)이 9월 첫 주 개강하여 은혜롭게 진행중이다.

총10주간의 학사일정으로 7주 이상을 출석하면 수료증을 받게 되는 열린교회 프로그램은 금주중 모든 등록을 마감하게 된다. 본인의 영성 성장과 여가활용 등의 기회를 갖기 원하는 성도는 금주 중으로 모든 등록을 마쳐주기 바란다.

에바다부 농아인 전도 실시

매 주일 오후 2시 30분 부터

우리교회 농아인 예배 부서인 에바다부(부장:홍성주 장로)는 지난 8월부터 매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일원동 소재 장애인 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호전도를 앞으로는 강남구 수서동 소재 장애인 아파트 지역까지 전도활동을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이 전도활동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에바다부는 매주일 농아인 전도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 한편 농아인들에게 전도편지, 팩스, 이메일,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개인전도 활동을 지금보다 더욱 왕성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에바다부는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용 봉사로 전도한다

전도활동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지난 13일(금) 교회내 이·미용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도 4명과 교역자 1명이 충북 청원군 남일면 소재 황청교회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70여명의 성도가 예배드리는 황청교회는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봉사활동을 편 서울교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이·미용 봉사대의 활동은 그동안 여름철 농촌 전도 봉사일정 때만 한시적으로 실시해오던 봉사활동을 연중 지속할 계획이며 이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미용 봉사를 통해 100교회 지인교회의 봉사사역, 병원과 복지시설의 전도봉사활동을 폭넓게 펼칠 계획이다. 이 사역을 더욱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용 기능 보유자와 물질로 후원할 성도를 모집하고 있다. 봉사신청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87회 총회 은혜중에 마치다

지난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영락 교회당에서 열린 대한 예수교 장로회 87회 총회가 열렸다.

특히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다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번역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함으로 이를 채택케 하였다. 또한 니케아 콘스탄틴 신앙고백서를 우리 헌법에 삽입시키는 일에 대하여 이론을 제시하였다. 니케아 신조는 기독교 중심의 신앙고백서로는 완벽하나 성령론에서는 문제가 있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와 분열되는 주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성령은 아버지로 부터 나온다 한 니케아 신조는 589년 톨레도 공회의에서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도 첨가기로 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총회는 이미 공포한 헌법은 3년내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이 안건은 아들에게서도 삽입하는 것을 일단 받되 확정은 3년후에 하기로 했다.

10월 27일은 헌당을 위한 건축헌금을 한다

2000년 12월25일 입당 감사예배와 함께 감격의 예배를 새 예배당에서 드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 헌당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차 건축비용 차용금을 환불하기 위해 오는 10월27일(주일) I, II, III부 예배시 헌당을 위한 건축헌금을 한다. 최고의 정성과 희생의 예를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바치기 위해 가정적으로 기도와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

-금주의 성구-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엡6:5-7)

Slaves, obey your earthly masters with respect and fear, and with sincerity of heart, just as you would obey Christ. Obey them not only to win their favor when their eye is on you, but like slaves of Christ, doing the will of God from your heart. Serve wholeheartedly, as if you were serving the Lord, not men, (Ephesians 6:5-7)

추석,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모처럼 한자리에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 모범을 게재한다.

예배순서

인도: 가족중 어른

목도-----	다함께
성시-----시 133:1-3-----	인도자
찬송-----453장-----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다함께
성경봉독-----시편 33:1-5-----	인도자
메시지-----"주를 찬양하고 신뢰하라"-----	인도자
찬송-----307장-----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메세지

"주를 찬양하고 신뢰하라" (시편 33:1-5)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요 그들의 역사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이라든 누구나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일은 모든 성도의 의무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 무엇으로 찬양해야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열 줄 비파 즉 각종 악기와 각양 은사를 따라 찬송해야 합니다(느 12:27)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깊은 음으로, 높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높은 음으로, 넓은 은총을 받은 사람은 진폭이 넓은 음으로, 평범한 은혜를 받은 자는 중간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찬송은 모든 회중이 함께, 힘차게, 겸손히, 박자와 고저장단을 맞추어, 영으로 부르라고 권면했습니다. 찬송하는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향기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2.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의 일은 모두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맞는 날보다 평안한 날이 더 많은 것은 하나님 사랑의 승리입니다. 공의로우시나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를 경배해야 합니다. 그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은 눈으로 그의 백성을 감찰하시며 그의 눈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십니다. 또한 그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시며 일용할 것을 풍성히 주시사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온 자들이요 죄인이었으나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좋은 것을 필요를 따라 넉넉히 주시니 우리는 큰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3.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우리는 옛부터 도움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스펀전의 주석에는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가 바다 한 가운데서 파선 지경에 이르렀으나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은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년은 의아해하는 무리들에게 "이 배를 지휘하는 선장은 내 아버지이며 나는 그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함으로 감사의 제목이 늘어가는 복을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귀한 헌신 - 열린바자



박철훈 장로(11교구, 바자위원장)

우리 교회는 금년 10월9일(수)부터 10월11일(금)까지 예배당 헌당과 이웃돕기를 위한 열린 바자를 가지기로 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2000년12월25일 입당후 예배당 헌당을 소원하고 있는 온 교회의 뜻을 이룩하며 동시에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기 원하는 이웃돕기를 실천함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서울교회 입당까지 기적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으며, 과부의 엽전 한 닢 같은 헌신을 모아서 주님께 드림으로 인간적 계산으로는 불가능했던 예배당 대지 구입과 건축을 이룰 수 있었다. 처음 사랑과 헌신이 살아있을 때 헌당을 꿈꾸는 우리의 소원은 감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번 바자는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심정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려서 내가 먼저 헌당에 동참하는 결단과 헌신을 나타내야 하겠다. 재산의 1/10까지도 드려서 하나님의 집을 헌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모아야 하겠다.

많이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실제로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보자.

-열린 바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 서울교회에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의 선물이 될 것이다.

"우리 서울교회는 봉사부라 칭하는 기관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실천하는 기관이 구제 위원회 인것입니다"

이것은 이종운 목사님의 평소에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 피해 현상이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될 때마다 우리는 놀라고 걱정하며 어서 속히 복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과 온정의 헌금으로 우리는 양식과 생필품을 준비하고 농어촌미자립교회 지원, 자매 교회인 경북 김천시 농소면 백마교회와 김천 지례면 울곡교회 그리고 경남 김해시한림면 시산교회를 차례로 방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

수해의 현장은 참혹하다는 것 이외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같다. 마을의 형태가 변하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논밭은 형체도 없이 자갈밭으로 변하고 주민들은 허탈감으로 의욕을 상실한채 원망할 수 없는 대자연의 재해에



났두리조차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이 통할까! 다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수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임훈규 장로(구제위원장)

에 우리 인간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대적하지 않는 선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만이 우리의 살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길이라고 주민들에게 전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우리가 몇 년을 고생하여 제방을 쌓아도 한순간에 제방은 무너져버리고 만다.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함을 되뇌인다. 이웃을 구제하고 전도하여 천국시민을 양성하는 서울교회의 3대목표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눔이 있는 실천을 함으로 하나님께 크나큰 영



광을 드리고 이러한 지속적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고 다시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16)

서울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II)

김정인 선교사(라오스)

이종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솔직히 우리 일행은 처음에는 5시간 동안 입국 심사대에서 기다리는 동안 많이 낙담하고 지쳤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로잔대회 기간동안 날이 갈수록 우리를 새롭게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더 많은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태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비록 빨리 출국을 하였지만 우리를 위해 애쓰신 성도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수 천가지 단어로도 우리가 받은 새로운 희망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 라오스에서

Sanath - Sharmila Athukorala 사나스 사밀라 아투코랄라(스리랑카)

이종운 목사님, 스리랑카의 사나스입니다. 당신과 성도 여러분이 아시아 로잔 대회 기간 중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사히 귀국하였고 교회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Bgin Saha 열진 사하(방글라데시)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 참석자 여러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드리는 안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을 만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참으로 중요한 기회요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주회하신 분들의 겸손한 영혼과 친절함 그리고 저의 영적 부분까지 감동시키는 예리한 관심에 진정으로 감동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대회기간 동안 주의 종의 지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종운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데이빗 클레이톤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실행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감사의 뜻을 전하는 편지에 불과합니다. 곧 우리의 협력과 연락을 위해 개별적으로 편지를 쓸 예정입니다.

우리는 서울교회와 찬양으로 수고하신 루디아 여전도회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안에서 열린 사하 드림

제사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

1. 먼저 깊은 기도로 준비하고 여행을 떠난다.
2. 추석을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
3. 명절이나 생신 결혼 기념일 결혼식 등 식주들이 모이는 특별한 날에 집안 어른들께 정성껏 효도를 하여 집안을 화목하게 하여 나무랄데 없는 사람이 된다.
4.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참석지 못한 가족에게 선물이나 행복메시지를 보낸다.
5. 명절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여성 가족들을 위해 관심과 사랑선물을 전한다. (생명의 삶 중에서)

제2회 새가족부 Homecoming Day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남정열 성도 (12교구)

저는 몸은 살아 있으나 영혼이 죽어 피곤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살아왔습니다. 스물 일곱 살 때는 일하다 높은 곳에서 거꾸로 보도 불럭에 떨어져 오른팔이 부러지고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일년동안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마저 돌아가시어 동생들까지 제가 보살피야만 했습니다. 물론 형님과 누님들이 계셨지만 그들을 돌볼 형편이 못돼 내 한 몸 희생해서 그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머리는 깨질 것 같고 두 눈은 빠질 듯이 아픈 고통 속에서 길을 가다가 정신을 잃고 길가에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초라하고 불쌍한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검사결과는 뇌종양이었고 의사는 수술을 하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다고 수술을 권유 하였습니다만 그냥 퇴원을 시켜 주도록 요청하고는 그 상태에서 그냥 퇴원해 버렸습니다. 아프다는 것과 죽는다는 걱정 보다는 동생들을 위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부도로 월급도 일 년치를 못 받고 믿은 사람에게 빌려준 돈도 때인 채 일하던 중 아는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6년 동안 그 집사님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찮은 나를 하나님은 왜 원하시고, 집사님은 왜 그토록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 아침에 '그대 교회 가자' 하고 곧장 서울교회로 와서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말씀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하고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왜 이제야 하나님을 찾아왔는지 후회가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새가



족부에 가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교회는 어떤 곳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등을 배우는 것이 즐거워 주일만 기다립니다. 또 기본 성경구절을 모두 암송하며 주간 성경공부문제도 매주 빠뜨리지 않고 풀어서 제출합니다.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며

유명희 성도 (13교구)

저는 어려서부터 주변의 현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높은 산과 흐르는 물, 때를 따라 계절의 변화를 정확히 운영하는 신비한 어떤 힘은 무엇인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라면서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움직인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는 창조주가 있을 것이며, 그분은 가끔씩 나가던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청소년이 되면서 누구나 그렇듯 산다는 것과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것에 대한 물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어떤 책에서도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은 내게 혼란스러웠고 공허했습니다.

그러다 순복음뉴스라는 교회에서 발견되는 신문은 보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좀더 알고 싶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주일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싶어했던 인생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음이 보다도 더 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몇 번이고 거듭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은 이남 오녀의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에게 먼저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형제들이 다 믿게 되었고 지금은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그들의 시댁식구까지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완고하셨지만 온 형제들이 항상 기도했고 결국 친정아버지께서도 위암으로 위를 다 잘라낸 후에 이 년 전부터 예수님

을 영접했습니다. 원래 남편도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두 아이도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시댁 식구의 구원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친하게 되면 진심으로 잘 대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면 그때 던지시 살아 계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은혜가 어떤 건지 차분히 들려주며 전도를 합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문제로 이곳으로 이사 왔고, 하나님은 서울교회를 통하여 저로 하여금 영적 각성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신 새 가족 교사 분들의 헌신을 보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조금 나태해 있었습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하시며 저의 앞날이 주님의 준비와 인도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서울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강남이 변화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며 역동성 있게 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본받아 은혜로 변화 받기 위해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아부 전도대 편성표

교회 주변과 병원 산후조리원 등으로 전도를 나가기로 정한 유아부는 4팀으로 전도대를 구성하여 전도에 나서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전도대를 편성하였다.

- 전도1팀: 대원 - 이정연, 정유선 이봉규
담당지역 - 은마 미도아파트 (다락방장과 연계, 협조)
- 전도2팀: 대원 - 전용순, 김옥순, 박명석
담당지역 - 대치1,3,4 동 강남병원 (70인 전도대와 연계, 수요일)
- 전도3팀: 대원 - 김경옥, 김정의, 송동선
장요옥, 최숙희, 김경두
담당지역 - 개포동 (3, 4 단지) 영동 세브란스 병원
- 전도4팀: 대원 - 이남북, 나옥녀, 김계순
담당지역 - 차병원

동정

- 기증: 이현선 집사(3교구) 로잔대회용 이불100채, 베개 30개
- 이사: 민순구장로 이영희권사(6교구) 강동구 성내동 462-1호 현대파크빌라 202호 전화 475-9192

◎ 금주의 식사제공: 유형석 집사 · 제오복 집사 가정 (모친의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 (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 (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2. 서울성경대학 · 주부대학 · 살롬경로대학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수재민들에게 위로와 회복 그리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